

공정관광 1번지,
전북관광 브랜드 정립방향

ISSUE
BRIEFING
2018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10.31 vol.186

www.jthink.kr

연구진
김형오 연구위원
장재협 전문연구원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10.31 vol.186

CONTENTS

공정관광 1번지, 전북관광 브랜드 정립방향

1. 공정관광 등장 배경	4
2. 공정관광의 개념과 가치	6
3. 사례로 본 공정관광 프로그램 현황	7
4.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정책방향.....	10
1) 공정관광 확산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	10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실천과제	10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말췌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정관광 1번지, 전북관광 브랜드 정립방향

■ 관광의 부정적 이면에는 관광객과 지역민의 갈등으로 인한 관광혐오증 등장

-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인식에 전 세계적으로 이를 육성·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 그럼에도 관광객 위주의 정책 마련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정주권·사생활 침해 등으로 관광객을 거부하는 ‘투어리즘 포비아(Tourism Phobia)’가 확산되는 추세임
- 관광은 관광객 문화(Tourism Culture)와 호스트 문화(Host Culture)의 상생이 원칙이며(이수진 외 2인, 2016), 두 문화의 차이가 커질수록 잦은 문화적 충돌로 인한 관광객과 지역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와 삶을 존중하고 관광객과 지역민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고자 ‘공정관광(Fair Tourism)’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등장함

■ 관광객과 지역민의 상생,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공정관광

- 공정관광(Fair Tourism)은 공정무역(Fair Trade)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자 관광객의 윤리적 행동과 소비를 지향하며, 지속가능한 관광, 녹색관광, 책임관광 및 복지관광 등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구분됨
- 공정관광은 경제와 환경, 문화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여 보편적 관광경험을 추구하는 동시에 관광목적지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고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하는 것에 그 목적과 가치를 두고 있음

■ 모두가 함께 행복한 여행체험 1번지를 위한 전라북도 공정관광 브랜드 정립 필요

- 현대관광은 자연생태, 역사문화 등 자원의 단순한 관람과 감상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목적지의 생활과 문화, 역사 등의 체험을 중시하는 차별화된 목적이 전제되는 크리에이티브 관광(Creative Tourism)으로 전환됨
- 과거와 달리 관광객과 지역민의 각자의 문화가 목적지에서 충돌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로 인해 관광으로 인한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파생됨. 이는 지역이 관광을 거부하는 관광혐오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원인이 됨
- 전라북도는 관광환경의 선진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관광경험을 목표로 다양한 공정관광 콘텐츠를 마련하여 관광으로 인한 분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범적 접근에 국한된 관광객의 윤리적 행동과 태도를 보편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전북관광을 위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며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의 윤리적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광’과 관련된 실천과제를 마련해야 함
- 첫째, 전북형 친환경 관광프로그램 인증제 시행을 통해 콘텐츠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둘째, 전북 정숙관광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생활과 문화를 존중하는 관광객의 태도를 강조해야 함. 셋째, 전북공정관광협의체를 구성하여 목적지에서 관광객의 부당대우를 근절하고 지역민 또한 관광객의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공정관광의 선진모델을 제시하는 전라북도의 관광브랜드 정립이 필요함

1. 공정관광 등장 배경

■ 관광의 부정적 이면 : 관광객과 지역민의 갈등

- 과잉관광(Overtourism)은 환경과 생태계, 문화유산의 파괴와 교통체증, 소음공해 및 임대료·지대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으며, 사회적으로 ‘투어리즘 포비아(Tourism Povia)’, 즉 관광혐오증이 공정관광 확산의 원인이 됨(데일리굿뉴스, 2018.08.19)¹⁾
 - 2016년 11월, 이탈리아 베니스(Venice)에서는 지역민 주도의 관광객 거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관광객의 폭등이 집세 증가와 정주환경의 악화를 야기함에 따라 지역민의 정주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주장함(경향신문, 2016.11.13)²⁾
 -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에서는 과잉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묘사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관광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변화와 개발·성장 중심의 국가 관광정책의 관점 전환을 요구함(네이버 블로그, 2018.09.11)³⁾



[이탈리아 베니스 리알토 다리 관광객 거부 캠페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관광버스 공격사태]

〈그림 1〉 투어리즘포비아(Tourism Phobia)의 국제사회 사례

- 관광활동은 관광객 문화(Tourism Culture)와 호스트 문화(Host Culture)의 상생을 원칙으로 하며, 두 문화의 차이가 커질수록 문화적 충돌은 잦아져(이수진 외 2인, 2016⁴⁾),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 정주권·사생활 침해 등 관광객과 지역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
 - 과거 관광산업은 국가·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관광개발정책이 주류를 이루어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지방정부의 세입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유발함. 그러나 점차 소음과 쓰레기의 증가, 지역민의 사생활 침해 및 공동체의 해체 등 부정적 영향도 함께 발생시킴(이수진 외 2인, 2016)

1) 데일리굿뉴스(2018), Retrieved, 12th, Sep, from <https://bit.ly/2Na8J4b>, 2018.08.19

2) 경향신문(2016), Retrieved, 12th, Sep, from <https://bit.ly/2Mhi44V>, 2016.11.13

3) 네이버 블로그(2018), Retrieved, 11th, Sep, from <https://brunch.co.kr/@jasonsungilkang/51>

4) 이수진·조성환·전유나(2016), 「관광개발, 지역민 우선인가? 관광객 우선인가?」, 이슈&진단, No.230, 경기연구원

- 지역 규모와 비교하여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과잉관광 또는 양적 팽창에만 집중하여 지역의 정체성·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대량관광정책은 결과적으로 지역 및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의 마찰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됨

- 전주한옥마을은 양적 성장 중심의 관광개발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업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증가한 임대료, 쓰레기와 소음, 물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원주민이 지역을 이탈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⁵⁾이 가속화 됨. 여수의 낭만포차의 경우에는 과거 가족단위 관광객의 휴양지에서 유흥가로 변질되어 지역민이 포장마차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연합뉴스, 2018.07.03)⁶⁾



[북적거리는 전주한옥마을]



[포장마차가 늘어난 종포해양공원]

<그림 2> 과잉관광으로 인해 관광객과 지역민의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 사례

■ 관광객과 지역민의 상생 : 공정관광의 등장

- 관광은 모든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간 긍정·부정 상호작용, 지역변화의 원인이 됨에 따라 충돌을 중재하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관광객과 지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함(이수진 외, 2016)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개념이 '공정관광(Fair Tourism)'이며, 공정여행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본 개념은 공정무역(Fair Trade)에서 파생된 용어로 대량 또는 대중관광(Mass Tourism)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고유한 관광경험을 추구하는 욕구가 결합(한양대학교, 2011)된⁷⁾ 개념임
- 생활권을 벗어난 관광객은 감성적 사고에 기반 한 쾌락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고 이에 따른 탈규범 행동이 잦아짐에 따라 주거지역과 관광지역 간 경계가 모호한 관광지의 경우, 관광객의 시선과 지역민의 인식이 상호 충돌하여 발생하는 갈등 사례가 빈번함
- 이에 지역의 삶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측면에서 관광객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관광활동인 공정관광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함

5)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은 관광지가 되어 간다는 뜻의 투어리스티파이(touristify)와 지역 상업화로 원주민들이 밀려난다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합성어 (에듀윌 시사상식)

6) 연합뉴스(2018), Retrieved, 11th, Sep, from <https://bit.ly/2Mnpq6P>, 2018.07.03

7) 한양대학교(2011), 「모두가 행복한 서울관광 만들기: 공정관광」, 서울특별시

2. 공정관광의 개념과 가치

■ 공정관광의 개념

- 공정여행(Fair Tourism)은 관광개발의 경제적·사회문화적 편익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됨(Mvula, 2001; 이태숙·김철원, 2015)⁸⁾
- 관광활동이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으로 윤리적 소비와 행동에 기반을 둔 합리적 관광활동이 제시되면서 태동함(심원섭, 2010; 김가령, 2014)⁹⁾
 - 관광으로 인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공정관광은 1988년 영국의 투어리즘 컨선(Tourism Concern)이 관광객의 책임활동과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는 교육, 캠페인을 바탕으로 대량관광과 국제관광으로부터 파생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 공정관광 운동을 시작한 것에서 유래함
- 공정관광은 개념은 공정무역(Fair Trade)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의해 형성된 논의에 따라 윤리적 소비와 행동을 지향하는 관광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녹색관광, 책임관광 및 복지관광 등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존재함(노민경, 2018)¹⁰⁾

■ 공정관광과 관련된 전라북도 조례

- 전라북도 조례(제4503호)에 따르면 공정관광은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목적지 거주주민의 주거환경과 생태자연환경,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으로 정의됨(전라북도, 2017)

〈제정 2017-12-29, 조례 제 4503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목적지 거주주민의 주거환경과 생태자연환경,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 공정관광의 가치

- 결론적으로 공정관광은 공정무역과 유사한 개념이며, 분배의 공정성에 기초하여 관광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관광목적지의 지역민과 지역사회, 관광산업에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삶을 존중하고 체험을 통해 사람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광으로 정의할 수 있음(김가령, 2014)
- 따라서 공정관광은 경제와 환경, 문화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내포하며,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함

8) 이태숙·김철원(2015), 「공정관광(Fair Tourism) 속성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7(10), pp. 347~366

9) 김가령(2014), 「문화마을관광체험의 지각된 가치와 공정관광태도, 공정관광행동의도 간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28(2), pp. 174~196

10) 노민경(2018),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서의 공정관광 육성방안」, 2018년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 정책세미나 발제자료

3. 사례로 본 공정관광 프로그램 현황

■ 공정관광 사례 : 지속가능한 관광

- 공정관광의 유형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관광'은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인 지속성을 기반으로 문화의 보전과 생태적 과정 및 다양성의 유지, 경제적·사회적·심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의미함(WTO, 1989; 노민경, 2018)

〈표 1〉 지속가능한 관광 관련 공정관광 프로그램

시행주체	구분	세부내용
대전시	프로그램	Now we are going to Dajeon
	목적	TV프로그램 「어서와, 대전은 처음이지?」를 모티브로 한 외국인 역사·문화체험여행. 남간정산, 동춘당 등 고즈넉한 대전체험 및 국궁, 족욕, 온천 및 재래시장 방문 전통먹거리 체험
	내용	 대전역 → 舊충남도청사 → 남간정사 → 동춘당 → 시림미술관(KAIST) → 국궁체험(온천체험) → 한밭수목원(국립중앙박물관) → 중앙시장 → 성심당, 으능정이거리 → (호텔) → 온천체험 → 오월드
	프로그램	2018 근대를 걷다
	목적	대전 원도심 소재 근대건축물, 문화유산 활용 원도심 관광프로그램. 역사학자와 함께 걷는 해설이 있는 공정관광 근대역사 루트 탐험 및 미션 수행을 통한 공감 관광프로그램
	내용	 (코스 1) 충남도지사관사 → 대전근현대사전시관 → 대흥동성당 →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전여중강당 → 대전부청사 → 보죽집 → 지하상가 → 으능정이거리 (코스 2) 철도관사촌 → 대전역보급창고 → 舊산업은행 → 동양척식주식회사 → 舊조흥은행 → 목척교 → 대전역전시장 → 중앙시장 → 으능정이거리
	프로그램	Bee Park Tour
	목적	20여개 마을 상점이 참여하는 Bee 스토어, 공유서점, 공방체험 및 커뮤니티카페 등 청년창업 공간 방문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체험과 도시재생 체험 프로그램
	내용	 Bee Park → 우디목공방 → 유어왓츄리드(공유책방) → 쉐어하우스 꿀꿀통 → 마을 커뮤니티 탐방 → 마을 보물찾기 → 스탬프 릴레이
	프로그램	원도심 구구뚜뚜
목적	대전 원도심 체험 도보여행 프로그램. 대흥동 문화예술 공간 내 예술체험 및 게스트하우스의 색다른 숙박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원도심 사색 여행프로그램	
내용	 북카페 이데 → 대전여중 → 갤러리 → 벽화골목 → 미운오리공방 → 나무공방 → 소극장 고도 → 청년구단(청년창업지원 골목식당) → (게스트하우스) → 지역사람 만나기(대흥 노마드 활동가 등)	

자료 : 대전마케팅공사(2018), <http://dcckorea.or.kr:8088/webzine/201808/subpages/plus01.html>, 대전마케팅공사 공식 블로그

■ **공정관광 사례 : 녹색관광**

- '녹색관광'은 농촌자원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의 책임 있는 태도와 행동 외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익 창출을 유도하여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도모함(WTO, 1989; 노민경, 2018)

〈표 2〉 녹색관광 관련 공정관광 프로그램

시행주체	구분	세부내용
대전시	프로그램	소확행 힐링오감만족
	목적	대청호 두메마을 중심 생태관광자원, 농촌관광, 예술체험을 통한 오감만족과 지역 농산물 먹거리 체험
	내용	 흙을 통한 힐링&마음 나누기 → 다색 오감만족 밥상체험 → 거대역새습지공원 느리게 걷기 → 우리 마을 썩개떡 만들기 → 그윽한 풍경소리 설치미술 체험 → 생태체험(머그잔 그림 그리기) → 친환경 지역 먹거리 쇼핑
	프로그램	마을에너지 투어
대전시	목적	지속적으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비 에너지 절약여행 프로그램. 대전 에너지 자립마을 탐방여행으로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배우고 전기없이 살아보기를 체험하는 친환경 공정여행
	내용	 (코스 1) 해들마을절전소 → 자전거 발전기로 과일주스 만들기 → 에너지하우스 → 전기없이 음식만들기 → 선유고등학교 태양광 발전기 → 비전력놀이 → 절전서약하기 (코스 2) 모퉁이마을절전소 → 자전거 발전기로 과일주스 만들기 → 에너지하우스 → 뽕조흥은행 → 목척교 → 대전역전시장 → 중앙시장 → 으능정이거리 → 전기없이 음식만들기 → 소수력발전소 → 비전력놀이 → 절전서약하기
	프로그램	선흘리 마을기업체험×생태관광
제주도	목적	사회적경제 체험과 생태관광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 제주의 허파, 동백동산 꽃자왈의 생명력이 숨 쉬는 선흘리마을의 경관과 특산물을 체험하는 마을기업 체험 및 자연 속 오감만족 생태체험의 시간을 만끽하는 공정여행
	내용	 제주시 중앙경기장 (만남) → 선물리 동백동산 & 다같이 숲놀이 (제주의 허파, 꽃자왈 숲길 산책, 생태감수성이 익숙! 즐거운 숲놀이) → 선물리 마을기업체험 (오감만족 체험, 달콤 바사삭! 감귤과즙 만들기) → 제주시 중앙경기장 (종료)

자료 : 대전마케팅공사(2018), <http://dockorea.or.kr:8088/webzine/201808/subpages/plus01.html>, 대전마케팅공사 공식 블로그
 자료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2018), <http://www.jeuu.go.kr/ecotour/index.htm>

■ **공정관광 사례 : 책임관광**

- 반면, '책임관광'은 관광목적지의 자연·문화를 비롯하여 관광활동과 관계된 모든 부문에 대한 이익을 존중하는 형태로(WTO, 1989; 노민경, 2018), 특히 관광객과 지역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객의 윤리적 태도와 소비를 강조함

〈표 3〉 책임관광 관련 공정관광 프로그램

시행주체	구분	세부내용
서울시 종로구	프로그램	북촌한옥마을 정숙관광
	배경	관광객 과밀화,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체증 등 지역민의 정주권 침해 및 관광객과 지역민 갈등 심화
	목적	지역민 생활편의 도모 및 관광객과 지역민의 상생문화를 위한 선진화 관광환경 조성 도모
	내용	홈페이지·유튜브 홍보영상 제공 북촌관광지도, 골목길관광지도 배포 해설사 활용 정숙관광 캠페인 실시 여행사 및 관련업체의 지속적 협조



자료 : 아시아경제(2018),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0308593243405>, 2018.04.03

■ 전라북도 공정관광 사례

-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 (주)풍덩은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관광’의 테마로 생태관광, 에코여행, 힐링여행 및 마을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지역의 공정한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풍덩에서 제시하는 공정관광 수칙은 총 8가지로 다음과 같음

(주)공정여행 풍덩 여행수칙

- 1 여행 중 먹거리는 로컬푸드를 이용하고, 마을공동체에서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 2 잠자리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공간을 이용하므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 3 재활용품을 사용을 최대화하고 1회용품 사용은 최소화합니다.
- 4 여행의 비용은 지역에 순환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역상가에서 소비합니다.
- 5 여행지에서 만나는 주민들과 어르신들께는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 6 여행을 통해 마을과 그 지역의 문화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7 길 위의 여행에서 새와 돌과 나무와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고민합니다.
- 8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걷는 여행을 지향합니다.

자료 : (주)공정여행, 풍덩(2018), <https://blog.naver.com/poongdoongc>

〈그림〉 (주)공정여행, 풍덩의 여행수칙

4.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정책방향

1) 공정관광 확산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

■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정관광 콘텐츠 확충의 당위성

- 투어리즘 포비아(Tourism Phobia),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등 대량관광으로 인해 발생한 관광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공정관광은 그 범위와 유형이 지속가능한 관광, 책임관광, 녹색관광 및 복지관광 등으로 다양화·세분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관광활동의 보편적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역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관광객과 지역민이 상생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는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공정관광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전북관광 선진화를 위한 공정관광 브랜드 확립의 필요성

- 현대관광은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 등을 단순히 감상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생활과 문화, 역사를 체험을 중시하는 등 차별화된 목적이 전제되는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관광목적지에서의 경험을 중시하는 크리에이티브 관광(Creative Tourism)이 확산되고 있음
- 관광객 문화와 지역민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함에 따라 대응책으로 공정관광의 필요성이 확산되는 추세임
- 전라북도는 관광환경의 선진화를 위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공정관광이 내포하고 있는 분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범적 접근에 국한된 국내·외 사례에 사회심리학적 의미를 포함하여 관광객의 윤리적 행동과 태도를 강조할 수 있도록 공정관광 선진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실천과제

- 전라북도를 국내 공정관광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한 거점으로 육성·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을 정립해야 하며,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전라북도 공정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함
- 이에 선행연구와 사례고찰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공정관광 정책방향을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여행지 문화를 존중하면서 윤리적 태도와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관광’으로 설정·제시하고자 함

■ 전북형 친환경 관광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 전라북도 조례 제4503호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전라북도는 공정관광을 위한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정관광이 관광목적지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활용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으므로 친환경 관광프로그램 인증제를 시행하여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제정 2017-12-29, 조례 제 4503호〉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사례) 저탄소 친환경 관광, 생태관광 환경성적 인증제

- 환경부 주관 ‘생태관광 인증제’는 우수한 자연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심신 안정 도모 및 지역의 역사와 특색까지 고려하는 여행에 대한 인증제도이며,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함
 - 2017년 10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을 생각하는 관광문화 확산을 위한 생태관광 인증제를 시행하고 ▲월악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강릉 경포·가시연습지, ▲양구 두타연·편치볼 등 6개 지역 12개 관광프로그램을 선정·제시함
 -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를 기초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수치로 표시하여 관광객의 환경인식 제고 및 생태계 보호에 적극 동참하도록 장려함



- 대상위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프로그램 : 국립공원 명품마을 영산도 생태관광 프로그램
- 세부내용 : 선박을 이용하여 영산도 이동, 마을벽화투어, 영산10리길, 후박나무숲 등 지역 곳곳을 체험하는 당일 프로그램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7), ‘친환경 관광도 저탄소, 생태관광 6곳 환경성적 인증’, 보도자료, 2017.10.16

■ 전북형 정숙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전라북도 관련 조례(제4503호)에 근거하여 전주한옥마을 등 관광객으로 인해 지역민의 생활권과 문화향유권이 침해받는 관광목적지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정숙관광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함
- 이는 관광에 대한 지역민의 부정적 인식을 상쇄하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문화와 삶을 존중하는 윤리적 태도를 체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정숙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역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관광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정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향후 공정관광의 지속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제정 2017-12-29, 조례 제 4503호〉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사례) 부산감천문화마을 내 '묵음 존(Silent Zone)' 설정에 관한 정책 제언

- 박경옥(2018)은, 부산시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방지를 위해 '부산감천문화마을 내 묵음 존(Silent Zone) 설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말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묵음 존 설치를 통해 관광객의 차분한 관광활동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윤리적 행동과 태도를 지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함
- 부산감천문화마을은 수용가능한 관광객을 넘어서는 과잉관광으로 인해 관광객과 지역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객 방문예약제, 예약보증금 등을 통해 관광인원을 제한 또는 분산하는 정책으로 고려 중이며, 묵음 존(Silent Zone) 설정을 통해 지역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관광문화를 형성하고자 함



자료 : 박경옥(2018), 「부산시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잉관광을 방지하려면」, BDI정책포커스, 제344호, 2018.09.17.
 사진 : 뉴시스(2018), Retrieved, 24th, Oct, from <https://bit.ly/2OLP23w>, 2018.10.04.
 사진 : 국민일보(2018), Retrieved, 24th, Oct, from <https://bit.ly/2ScBk7K>, 2018.10.04.
 사진 : 연합뉴스(2018), Retrieved, 24th, Oct, from <https://bit.ly/2PdNzm3>, 2018.09.17

■ 전북공정관광협의체 구성 및 활동 강화

- 조례 제4503호는 도지사로 하여금 전라북도 공정관광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의 개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다양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이에 '전북공정관광협의체'를 구성·활동을 강화하여 공정관광 1번지 전북관광의 브랜드 정립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제정 2017-12-29, 조례 제 4503호〉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체험관광 1번지, 전북관광의 브랜드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선언문 발표

- 각종 관광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영향은 관광객과 지역민의 갈등 사례를 촉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정관광'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음
- 전라북도 차원의 공정관광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통해 '공정관광 1번지, 전북관광'의 브랜드 정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선언문을 작성·발표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라북도가 공정관광의 대한민국 일번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